



올 첫 모내기 12일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허만재씨 논에서 농민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알리는 전남도내 첫 모내기를 하고 있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름의 영농철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고 안 사다 피웁니까? 비료나 농약값 오른다고 농사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농산물가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농사 지을 맛이 안나죠.”

12일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에서 울 들어 첫 모내기가 이뤄져 본격적인 영농철을 알렸다. 하지만 농심(農心)은 달갑지가 않다. 농자재값 등 영농비는 부쩍 올랐는데 농산물가격은 뒷걸음질이나 ‘검시름’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당 818원하던 농업용 면세유 경유가격이 1년 사이에 1130원으로 38.1% 급등했다. 휘발유 가격은 8당 780원에서 1020원으로 30.8% 올랐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면세유가격도 동반상승한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농자재값 급등으로도 이어졌다. 하우스의 주요 자재인 파이프(25.4×1.5) 가격은 지난해 말까지도 1m당 1161원이었지만 3개월 사이에 272원(23.4%)이 올라 이날 1433원에 팔리고 있다.

시설하우스 건축업을 하는 조모 씨

는 “작년보다 파이프와 비닐·부자재 값이 15~20% 가량 올랐다”며 “이로 인해 하우스 건축비용(1000평)이 2000만원정도 올라 농민들이 짓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농기계값도 올랐다. 지난해 말 321만원하던 경운기가 14만원 올라 335만원에, 트랙터는 70만원 올라 169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농약값(키타진유제)은 3560원에서 3730원으로 올랐고, 요소 비료도 20kg 1포에 1만650원에서 1만1200원

으로 상승했다. 반면 주요 농산물 도매가격은 크게 떨어져 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7일 전남지역 주요 농산물 도매가격은 청피망(10kg)이 2만7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9400원보다 무려 65% 급락했다. 풋고추와 호박도 2만9800원, 9800원에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7만7480원, 2만280원)보다 각각 62%, 52% 하락했다.

양파(1kg)는 지난해 1140원에서 720원(37%)으로, 오이(20kg) 5만

6067만원에서 4만1333원(26%), 배추(1kg) 1414원에서 1360원(22%), 감자(20kg) 3만1400원에서 2만4400원(22%)으로 떨어졌다.

광주시농민회 이준병 사무국장은 “면세유·농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겨울 시설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이 많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해져 가는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영농비 보조,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재보선 후보 등록...본격 레이스 돌입

전남지역 4곳에서 치러지는 4·27 재보궐 선거가 12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4면>

후보등록 첫날인 12일 순천 국회의원 보선에 7명이 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전남지역 4곳 선거구의 경쟁률은 3.25대1을 나타냈다.

12일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등록 첫 날인 이날 순천 보선에는 민주노동당 김선동(43) 후보와 김경재(68·전 민주당 의원), 허신행(68·전 농림부 장관), 허상만(67·전 농림부 장관), 박상철(51·경기대 교수), 구희승(48·변호사), 조순용(59·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보 등 무소속 6명을 포함, 모두 7명이 순천시 선관위에 등록했다. 후보 7명 중 민주당 김선동 후보는 정당소속으로 기호 5번이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 6명은 13일 후보등록 마감 직후

순천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8번부터 13번까지 기호를 배정받게 된다.

화순군수 재선거 후보에는 민주당 홍이식(52·전 전남도의원) 후보와 무소속 임호경(59·전 화순군수) 후보가 이날 등록을 마쳤다.

전남도의원 화순 제2선거구 보궐선거 후보로는 민주당 구복규(56·전 화순읍장) 후보만이 등록했고, 목포시의원 라 선거구 재선거에는 민주당 최기봉(60)후보와 민주노동당 조영규(38), 무소속 전금숙(52)가 등록을 마쳤다. /최권일기자 cki@

과학벨트 입지 평가 ‘지반 안정성’ 제외 광주시 반발...심사항목 수정 촉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평가위원회가 과학벨트의 입지요건 가운데 ‘지반 안정성’ 부문을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으로만 평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유치 경쟁에 나선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자신해왔던 ‘지반 안정성’부문이 심사평가에서 소홀히 다뤄질 경우 과학벨트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입지를 결정하게 되는 입지평가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심사 평가 계획안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항목은 과학벨트특별법 제9조에 명시된 5가지 입지 요건별로 3~5개씩 설정되며, 전체 심사 항목수는 20개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심사항목 가운데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은 별도로 세부 심사항목을 두지 않고 단순히 ‘적격-부적격’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반 안정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 광주시는 평가위원회의 심사 항목에서 안정성 부분이 제외될 경우 과학벨트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입지평가위원회 심사 항목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의 여파로 과학벨트 내 중이온 가속기가 들어설 지반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도 다른 모든 심사항목은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면서 유독 지반 안정성 부분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오히려 과학벨트는 지반의 안정성과 부지확보의 용이성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과학벨트기획단에 공문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과학벨트 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부당성을 지적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지반 안정성 부문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중추 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시설은 지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데도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환경까지 세세하게 평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특정지역에 과학벨트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재보선 조기 과열·혼탁 양상

불법행위 전국 43건...전남 12건이나

오는 27일 치러지는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화순군수 재선거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조기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12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 43건으로, 고발이 9건, 수사의뢰 2건, 경고 3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화순군수, 목포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고발 2건, 경고 10건 등 총 12건이었다. 전체 불법 행위 적발 건수의 30%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 중에서 민주당 예비후보가 난립했던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고발 2건에 경고 5건으로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고발된 2건은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혐의이며, 경고 내용은 인쇄물 배포가 4건,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1건 등이다.

전남도 선관위는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에 참석하도록 한 뒤 참석자들에게 29만5000원 상당의 점心和 31만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제공한 C목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화순군수 재선거의 경우 불법 인쇄물 배포 2건, 전화이용 선거운동 1건

등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했다. 목포시의원 선거도 인쇄물 배포 등으로 인한 경고가 2건이 있다.

선관위는 유독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법 행위가 많았던 것은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난립한데다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이 과열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남도 선관위는 이처럼 이번 재·보선이 조기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특별기동조사팀을 처음으로 편성해 재·보선 지역에 투입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56 호남예술제
1956-2011 제56회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 전국대회
2011. 4. 28(목)~6. 1(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 음악·무용·국악 부문 2011. 4. 11(월) ~ 4. 15(금)
미 술 · 작 문 부문 2011. 5. 16(월) ~ 5. 20(금)
주 최 | 광주일보사
협 찬 | 삼성생명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http://art.kjmedia.co.kr 062. 220. 0541